東大新聞

根武榮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又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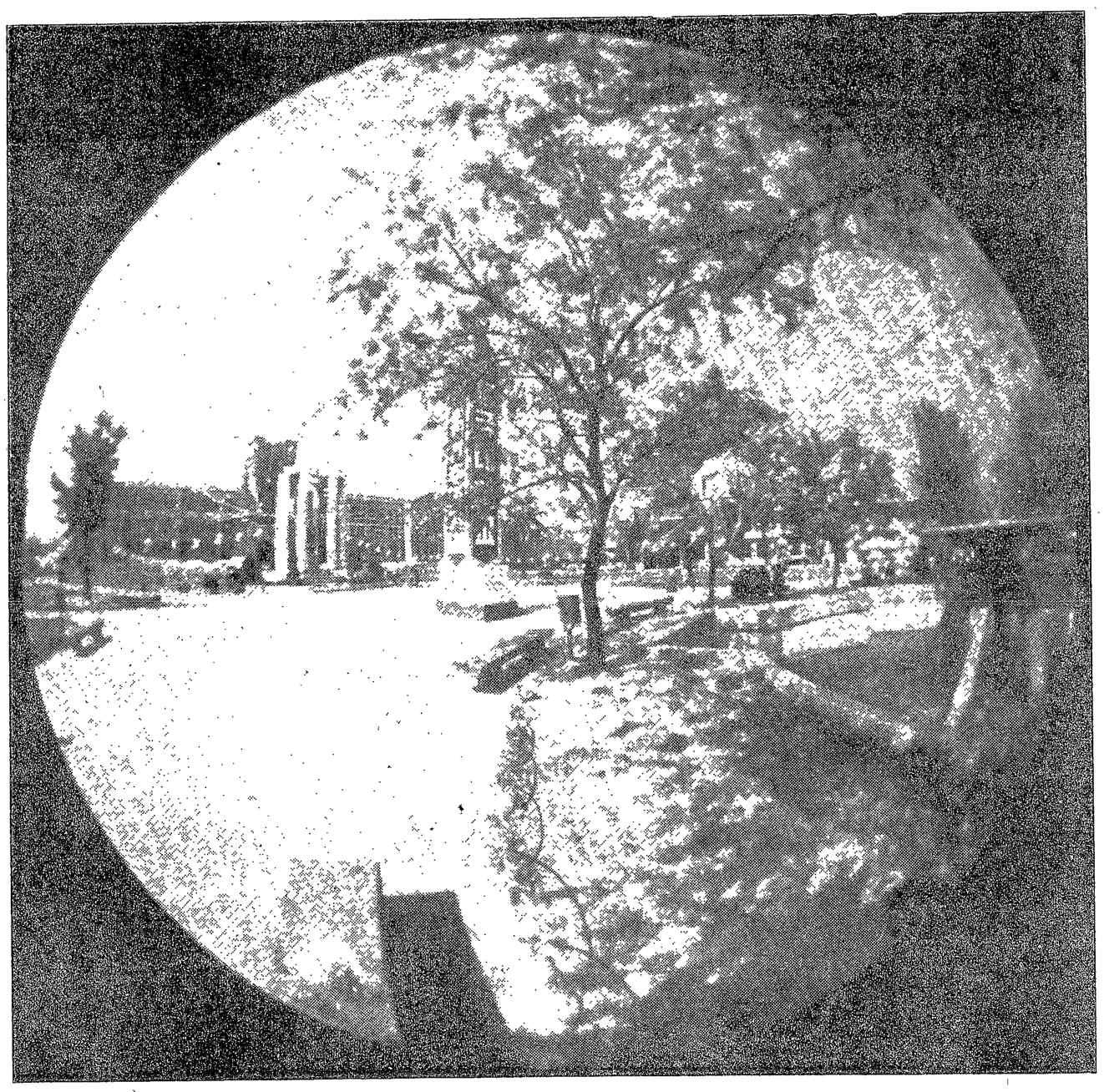
今週一言

學取正智,
意惟正道.
一心受諦,
不起爲樂.
漏盡習除,
是得度世.

마음은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항상 바른 도를 생각해, 오로지 한 마음 진리를 알아 집착을 버림으로 즐거움을 삼으면, 마음의 때가 다한 지견을 갖추어 이 승에서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法句經>

前進의 意志를 높게, 더욱 드높게



李瑄根總長 紀念式辭

親愛하는 東國人 여러분!

오늘 敬愛하는 尹月下이사장님과 佛敎宗團의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內外貴賓을 모신 자리에서 나는 同僚敎授·職員, 學生제군과 더불어 우리 東國大學校의 開校71주년 紀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回顧하건대 우리大學은 1906年開校이후 日帝暗黑期의 民族的인 수난과 험난한 격동의 아픔을 民族과 함께 겪으면서 試練과 激浪의 시대를 극복하여왔읍니다。祖國 光復後에는 社會的 思想的 혼란과 北傀南侵으로 빚어진 同族相쟁, 그리고 國家的인 危難에, 우리大學은 슬기와 용기로 對處하여, 挑戰이 거세면 거셀수록 眞理探求의 뜨거운 불길을 더욱 가열시키면서 즐기찬 學風과 證國의 저력을 발휘하여 왔다는것을 우리 東大史는 立證하고 있읍니다。

나는 먼저 全東國人과 함께 大學史上의 이러한 역경과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굳건하게 大學의 自由를 수호하고 深奧한 學問의 殿堂을 成長시켜오신 歷代 理事長님과 歷代總·學長님을 비롯한 敎授·學生등 全東國人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大學의 質的 成長에 總和團結

「苦行」, 그 偉大한 忍耐와 精進을

기틀게 對應할수 있는 自主 自立的인 力量과 洽徹한 理性, 그리고 不退轉의 추진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읍니다。

진리탐구의 길은 일찌기 부처님이 王宮의 모든 榮華를 뿌리치고 가출하셔서 苦行林 그늘에서 風雨寒露과 飢渴을 이기시면서 6년 동안 苦行하시다가 豁然大悟했던 가르침으로 비유할 수가있다고 생각합니다。부처님이 6년 동안 우주의 진리를 추구케하고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다음 세상 사는 지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다。열반 또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손색이 아닌 만족한 경지에 있었다는 것은 곧 열반의 교훈이다。

우리의 建學理念은 自我完成과 함께 衆生제도의 실천적인 智慧의 活性化를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하겠읍니다。衆生제도는 이기적이며 소극적인 小乘의 길이 아닙니다。利他的이며 적극적이며 자기희생적인 大乘菩薩의 길입니다。그것은 나 한 개인이나 내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全人類世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精進으로, 교육과 연구에 일할 때, 우리에겐 분명히 위대한 大學史와 民族史의 전진이 기약될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建學理念은 自我完成과 함께 衆生제도의 실천적인 智慧의 活性化를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하겠읍니다。衆生제도는 이기적이며 소극적인 小乘의 길이 아닙니다。利他的이며 적극적이며 자기희생적인 大乘菩薩의 길입니다。그것은 나 한 개인이나 내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全人類世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精進으로, 교육과 연구에 일할 때, 우리에겐 분명히 위대한 大學史와 民族史의 전진이 기약될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東國大學校의 建學理念인 佛敎의 自我完成과 衆生濟度는 大學의 사명과 大學人의 自我完成은 진리에 根據한 修行을 전제로 敎育과 연구에 重點을 두어 激變하는 새 時代를 先導하고 영원한 敵도 없는 國際政治社會에서,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문제와 미묘한 韓美관계, 그리고 日本의 韓國輕視와 무정의 등 일련의 사태를 냉철하게 주시해야 하겠읍니다。

변화무쌍한 共產侵略의 暴威와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자기國家의 利益本位로 내닫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韓國佛敎의 護國精神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읍니다。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護國佛敎를 오늘에 되살려 慈悲無敵 金剛不動의 신념으로 自主國防과 自主經濟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학문의 보편적인 성격은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大學과 大學人은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여기서 우리는 護國佛敎에 입각한 自主·自立·自衛의 정신으로 大學人의 大道를 힘차게 걸어 國家社會建設에 활력을 倍加하고 總力安保를 이룩합시다。

학문의 보편적인 성격은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大學과 大學人은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여기서 우리는 護國佛敎에 입각한 自主·自立·自衛의 정신으로 大學人의 大道를 힘차게 걸어 國家社會建設에 활력을 倍加하고 總力安保를 이룩합시다。

오늘 돗깊은 開校紀念日에 勤續·勤務표창을 받으신 敎授·職員 여러분께 충심으로 치사를 보내면서 본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비는 바입니다。

이 時間과 이 空間도 맡은 主人으로!

學生들에게 주는 부탁

—開校 七一周年 紀念日에—

未堂 徐廷柱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된 멍에거던
가장 무거운 멍에를 멘 사람으로,
歷史속에 鬼神속에 갔다 놓아도
역시 가장 떳떳한 몫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精神의 옷은, 그렇지,
저 未來佛—彌勒님의 繼衣。
부처님이 입혀주신 彌勒님의 繼衣。

幸福이나 不幸 따위이겠나?
그런것 億千萬곱 합친 것보다
더 대단키만한 값으로,
살고 죽고 그런 것도 이미 다 버린
肉身의 生死 넘어 눈부신 永生일 뿐。

病도 病일 수 없고
늙을 겨를도 없이,
主人으로 主人으로!
이 時間과 이 空間
도맡은 主人으로!

<詩人·文理大敎授>

智慧의 宗敎

수리수리

불교의 자비가 지혜보다 더 평가되기도 만만치 않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의 강령이 되는 八正道에서 이며 특색임을 알 수 있다。다른 종교가 투철히 밝히지 못하는 지혜를 불교에서는 그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 깨달는 법까지 지혜의 축구가 구체화 되어있다。禪사상이 불교에서 특히 발달된것도 불교의 지혜의 구체성에 기인된것이다。기독교에는 사랑이 우선되고 유교에서는 도덕이 우선되었듯이 불교에서는 역시 이 지혜가 우선하여 바른 깨달음을 주고 인생을 자각케하며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시던 그 위대한 인내와 克己와 精進으로, 교육과 연구에 일할 때, 우리에겐 분명히 위대한 大學史와 民族史의 전진이 기약될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建學理念은 自我完成과 함께 衆生제도의 실천적인 智慧의 活性化를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하겠읍니다。衆生제도는 이기적이며 소극적인 小乘의 길이 아닙니다。利他的이며 적극적이며 자기희생적인 大乘菩薩의 길입니다。그것은 나 한 개인이나 내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全人類世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精進으로, 교육과 연구에 일할 때, 우리에겐 분명히 위대한 大學史와 民族史의 전진이 기약될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東國大學校의 建學理念인 佛敎의 自我完成과 衆生濟度는 大學의 사명과 大學人의 自我完成은 진리에 根據한 修行을 전제로 敎育과 연구에 重點을 두어 激變하는 새 時代를 先導하고 영원한 敵도 없는 國際政治社會에서,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駐韓美軍의 철수문제와 미묘한 韓美관계, 그리고 日本의 韓國輕視와 무정의 등 일련의 사태를 냉철하게 주시해야 하겠읍니다。

변화무쌍한 共產侵略의 暴威와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자기國家의 利益本位로 내닫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韓國佛敎의 護國精神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읍니다。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護國佛敎를 오늘에 되살려 慈悲無敵 金剛不動의 신념으로 自主國防과 自主經濟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학문의 보편적인 성격은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大學과 大學人은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여기서 우리는 護國佛敎에 입각한 自主·自立·自衛의 정신으로 大學人의 大道를 힘차게 걸어 國家社會建設에 활력을 倍加하고 總力安保를 이룩합시다。

오늘 돗깊은 開校紀念日에 勤續·勤務표창을 받으신 敎授·職員 여러분께 충심으로 치사를 보내면서 본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비는 바입니다。

時事英語研究 6월호 값 680원

映画台詞 The Last Concert

☐ The New Pacific Power Balance
〈太平洋地域 蘇軍事力의 팽창〉··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Third World Commodity Power
〈南北問題와 資源勢力의 대두〉····· By Sanford Rose
☐ The Myth of an Adversary Press
〈美国政治와 言論의 役割〉····· By Tom Bethell
☐ Plate Tectonics Revolution
〈板構造論의 革命〉·····By Dava Sobel
☐ Can We Live Forever?
〈永生은 바람직한 일인가?〉·····By E. K. Pye
☐ 이달의 인터뷰 ☐
Interview with Vice President Mondale
〈몬데일의 유럽·日本6個国 巡訪報告 記者会見記〉

An Essay Playing with Genes·· By A. Buchwald 〈人造人間의 世界〉
考試英語 豫想問題
MEN & IDEAS M. Desai 論·····梁璨圭
英語어휘征服論 ·····任永宰
TOEFL 誌上講座·····編輯室
海外短信 Saul Bird Says: 〈連載 3回〉 〈소울 버드의 絶叫〉·Joyce Oates
實務英語 貿易英語会話····· 編輯室
佛語誌上講座〈6〉…프랑스文化館

英語世界 6월호 값 550원
映画台詞 ROCKY
팝송/ Evergreen外/스포츠 技巧의 Boxer Jimmy Young
◇What Do You See?
◇Master Your Life
◇호랑이를 잡으려면 ·····
連載 世界人物野史(5)/Heavenly Discourse(5)/ 이집트伝説
英語講座 TIME·Newsweek 研究/生活英語会話/名文章研究/英作文/취직영어모의문제

SALT Solution
(美·蘇간의 불붙는 소금(SALT) 경쟁에 大戰의 위험 있다!)
▶ Sorry State of Feminism 〈여성해방운동 전선에 異常 있다〉
▶ When God Was a Woman 〈神은 男性인가? 女性인가?〉
▶ Carter's Image-Making Warming-up ···· U. S. NEWS & WORLD REPORT
▶ The Changing Soviet Union 〈소련 経済의 딜렘마〉
★ 教育制度를 고발한다 ★ Education-The Universal Problem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 3 時事英語社 (29) 6624~5

韓国 最初의 소리나는 雜誌
時事英語 月刊 카세트 6月号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in Sound
(每月初 月刊「時事英語研究」誌와 同時에 全国書店에서 発売!)
■ 世界의 名演説
Interview with Walter Mondale
〈몬데일의 유럽·日本巡訪報告会見〉
■ 英語 방송뉴우스
World News in Brief
Home News in Brief
■ 외국映画를 原Talkie로 감상
The Last Concert(라스트 콘서트)
■ 貿易英語会話
BUSINESSMEN'S ENGLISH
C-60 카세트 테이프 1개 값 2,000원(Text제외)
1年 定期購入時 20,000원 (割賦可)
時事英語社
주문전화 : (29) 6624~5

全国 書店에서 発売中!
語源中心 Word Power 研究
仁荷大 助敎授 任永宰編著/菊版 570面/값 3,000원
◇ 韓国人의 어휘記憶 Pattern에 맞춰
◇ Shakespeare를 읽어낼 수 있는
◇ 単語実力을 길러주는 語源中心
◇ 例文中心의 Word Power決定版
構成 Part I - 教養必須語彙研究/ Part II - 基礎語源研究/ Part III - 主要語源研究/ Part IV - 大学教養語彙研究
時事英語社 注文処 (29) 6621~3

註解版 Norman Lewis著
WORD POWER MADE EASY
時事英語社 編輯局 註解
4·6版/高級紙올셋인쇄/값 1,200원
5万単語를 最短時日에 完全 征服!
1 Vocabulary Builder로서는 美国은 물론 全世界에서 최장기 Best seller임.
2 単語의 語源·技能을 과학적으로 分析説明.
3 어려운 単語·語句를 Footnote式으로 매페이지 下段에 우리말로 설명했으므로 일일이 辞典을 찾지 않고도 쉽게 本文을 이해할 수 있음.
時事英語社 注文 (29) 6621~3

社 英語책은 時事英語社
企業은 英作実力이 있는 人材를 구하고 있읍니다.
英作文全集 全9券
1 英作文의 基本要領
2 基本文型 英作文
3 日記·書翰英作文
4 現代中級英作文
5 時事英作文
6 就職英作文
7 貿易英作文
8 高級英作演習
9 英作文辞典
英語実力=(会話力 読解力 作文力)의 三位一体
값 18,000원 5개월 할부
時事英語社
注文処 (75) 5064 (26) 6795 仁川(3) 8758

出幽遷喬 自谷于木

慶揮念紀開校同門 植寅 柳◇

開校71周年紀念特輯

社說

開校71周年을 맞이하여

名山의 하나로 손꼽혀 高麗시대부터 書會를 통하여 잘 알려진 木覓山 기슭에 자리잡은 우리 學府의 校史도 또한 이제 꽤나 오래되었다。1906年 世界列强의 侵略이 날로 심해지는 속에 19세기를 휩쓸었던 暗黑의 바람이 온 누리에 휘몰아치던 때 이곳 木覓山에 朝鮮王朝의 숨결이 되살아나 民族精氣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이와같은 大學存立의 意義는 이미 國民層知의 사실이다。

하나의 世界觀과 人生觀을 갖고 이에 맞추어 되새겨보면 그 철학에 있어서 어느 學府보다 솔선하고 선구적인 것으로 확신한다。

즉 儒敎 佛敎 朱子學을 統治理念으로 한 朝鮮王朝末期에 녹아들었던 西學의 물결을 이어 國權을 수호하고 民族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개화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 木覓山이었다。

學園街路樹 밝은 가을 햇살 아래 붉게 물들어 가는 이 아름다운 校史의 현장에서 우리는 새삼 옷깃을 여미는 마음 간절하다。

이곳에 자리잡은 大學은 1906年 官立法學校로 출발하여 1910年 京城法學專門學校로 개칭하였고 1924年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로 확대 개편되었다。

1945年 8·15 解放과 더불어 京城大學으로 개칭하였고 1946年 京城大學 法文學部와 京城師範學校를 통합하여 京城大學校로 발족하였다。

1951年 6·25 動亂 중 釜山에 피난하여 있던 校舍를 1953年 서울로 환도하였고 1956年 文理科大學을 木覓山 현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61年 5·16 革命 이후 大學은 社會의 指導的 役割을 다하기 위하여 1962年 學制改編을 단행하여 1963年 3月 1日 現 서울大學校로 改稱하였다。

1975年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修了者 1,000名을 배출하였으며 1977年 2月 現在 在學生 數는 學部 11,000名 大學院 3,000名에 이르고 있다。

校勢의 이와같은 發展은 歷代 校友들의 끊임없는 努力과 社會各界各層의 아낌없는 後援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 71周年의 校史는 5·16 革命 이후 15年間의 校史로서 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大學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指標를 가지고 새 世紀를 向한 躍進의 時期이다。

우리는 이 71周年을 맞이하여 建校 및 文化藝術 振興에 헌신하신 歷代 總長 및 教授 諸賢의 業績을 기리고 學園의 自由와 自治를 守護하기 위하여 殉職하신 學生 및 教職員의 靈前에 삼가 哀悼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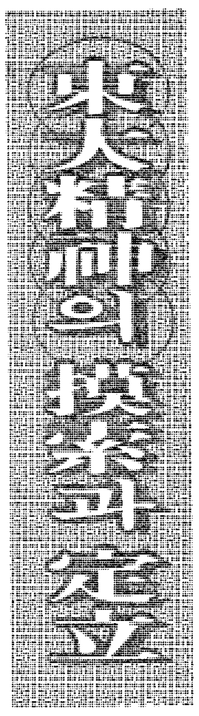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大學의 社會的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를 守護하는 것은 勿論 大學人 各自가 自己의 學問과 人格을 陶冶하는 데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71周年을 맞이하여 大學의 理念을 다시 한번 確認하고

開校71周年紀念 特輯

東大精神의 定立을 위하여

東大精神의 探索과 定立



鄭 璡 <哲博·佛敎大敎授>

(1)

한 個人에겐 個性이라는 것이 있고, 한 集團엔 그에 고유한 精神이라는 것이 있다。여기서 個人과 集團은 形式이오, 個性과 精神은 內容이라고 할수 있겠다。그릇과 그 그릇에 담긴 알맹이는 形式과 內容의 관계로서 서로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밥이 담긴으로써 「밥그릇」이 되고, 물이 담김으로써 「물그릇」이 되는 것이다。밥이 없으면 그 그릇은 비어서 아무런 特色도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릇이 없었으면 밥도 밥의 구실을 못 하게 된다。

그러나 한 個人에 있어서 個性이랄 것이 없고, 또 한 집단에 고유한 精神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위의 논법에 따르면 그것들은 흙사 밥도 물도 담겨지지 않은 그릇, 가게의 빈그릇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그 그릇을 特色지우는 내용물이 빠져있는 경우처럼, 평범한 個人이며 유야무야한 集團일 뿐이다。있으나마나의 머릿수만채우는, 따라서 存在理由가 없는 個人과 集團을 사람노릇도 集團구실도 못하는 存在가 될뿐이다。거기엔 生命이 깃들어 있다고할 수 없으니 바로 無生命體이며, 여기저기에 굴러있는 돌멩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2)

그러면 우리 大學은 어느만큼의 內包를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東大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理想追求의 集團으로서의 大學다운 날전가능성과 生命充滿體로서의 大學의 이름에 알맞는 자랑과 영원한 靑春集團으로서의 大學만의 젊은과 憧憬과 꿈과 探險精神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정해정이나 자랑이나 젊은이나 다지고 보면 모두 大學 속의 바람직한 알맹이들이고 보면 이들은 결국 大學속의 異質物이 아닌 같은 同質物인 바에야 대학은 당연적으로 영원한 靑春性에 불타는 그래서 언제나 젊게 언제나 새롭게 성장발전하는 生命性을 지닌 理想主義集團의 마지막 교두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이 교두보가 무너지는 날, 나라와 겨레는 비참한 最後를 맞이하게 될것이다。우리는 여기서 「독일국민에게 告함」의 결구가 되는 「讀書이 쓰러지는 날, 人間性 전체가 여러분과 內部로 작용해 들어가는 범이어늘, 大東大의 생명과 청춘은 어디를 향하여 理想의 봉화를들 였단말인가? 東大의 現代는 노쇠한 나라들이 흔히 그렇듯이, 祖上과 과거의 업적 따위는 불문에 붙여 두기로 하자。과거를 팔고 사라진 빛을 재탕하고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 젊고 未來에의 기대가 너무 크다。얼마간의 꼰대따위는 유구한 歷史 속에선 아무것도 아니며, 그 일시적인 답보는 二步前進을 위한 一步의 後退가 되고도 남을것이다。百折不屈의 精神, 그것은 自我批判에의 각성과 함께 東大精神의 다른 측면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東大는 격려와 나라의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에살고 제구실을 다하는 데 충실하고 또 勇敢했는가? 3·1운동과 光州學生사건 때의 빛나는 靑春肉彈的 勇氣의 발휘는 문헌이 가리키는 바 그대로이거니와 우리가 목도한 4·19의 함기에서는 경우에 다가도에의 최선봉장이 됐수 있는 사자분신의 佛子精神을 기록하고도 있다。東大의 現代史는 靑春集團으로서의 大學의 명예에 큰빛을 던져주는 항홀속에서 그 서막을 열었다고 하자。그러나 그로부터의 조국근대화과정에서 황홀한 歷史의 소유자였던 東大는 대체 여기에 무엇을 보탰수 있었던가? 위대한 生命體는 노상 外部로 작용할 수 없을 뿐더러 內部로 작용하는 법이다。

未來指向, 一陣新風期約

求道者의 姿勢, 生命力이 底力

立冬 서들기 전에, 아니 이를뒤해서라도 조용히 우리 자신들의 들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맨 처음에 우리는 한 집단의 存在理由가 무엇한 한, 그 集團固有의 정신이라거나 指導理念이라는 것이 뚜렷한 법임을 지적했거니와, 저 오랜 歷史를 통해 東大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佛敎의精神을 반영, 창달해 왔는가。宗立大學으로서의 使命과 특징을 얼마만큼 살려왔는가? 여타의 大學에서는 볼 수 없는 東大 特有의 精神性과 그實踐躬行을위해 얼마만큼이나 노력 정진해왔는가?

더욱 韓國의 대학들이 외국의 그것에 비해 깊이 年淺한 탓으로 일찍 독자적인 性格形成의 階梯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자기변명할지라도 東大의 경우는 그와는 사정이 전연 다르다。大學目標의 年輪을 비록 짧다고할 지라도 그가 거기에 서 있는 佛敎의 역사는 세계 어느 宗敎보다도 앞섰을뿐 아니라, 韓民族의 精神形成에 미친 영향의 많고도 年條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追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동기로 東大는 여타의 大學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열격한 自己反省이 가해져야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그와 동시에 우리는 東大의 佛敎精神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대학이념의 모색과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東大精神의 定立을 서들기 전에, 아니 이를뒤해서라도 조용히 우리 자신들의 들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맨 처음에 우리는 한 집단의 存在理由가 무엇한 한, 그 集團固有의 정신이라거나 指導理念이라는 것이 뚜렷한 법임을 지적했거니와, 저 오랜 歷史를 통해 東大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佛敎의精神을 반영, 창달해 왔는가。宗立大學으로서의 使命과 특징을 얼마만큼 살려왔는가? 여타의 大學에서는 볼 수 없는 東大 特有의 精神性과 그實踐躬行을위해 얼마만큼이나 노력 정진해왔는가?

더욱 韓國의 대학들이 외국의 그것에 비해 깊이 年淺한 탓으로 일찍 독자적인 性格形成의 階梯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자기변명할지라도 東大의 경우는 그와는 사정이 전연 다르다。大學目標의 年輪을 비록 짧다고할 지라도 그가 거기에 서 있는 佛敎의 역사는 세계 어느 宗敎보다도 앞섰을뿐 아니라, 韓民族의 精神形成에 미친 영향의 많고도 年條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追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동기로 東大는 여타의 大學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열격한 自己反省이 가해져야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그와 동시에 우리는 東大의 佛敎精神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대학이념의 모색과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立冬 서들기 전에, 아니 이를뒤해서라도 조용히 우리 자신들의 들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맨 처음에 우리는 한 집단의 存在理由가 무엇한 한, 그 集團固有의 정신이라거나 指導理念이라는 것이 뚜렷한 법임을 지적했거니와, 저 오랜 歷史를 통해 東大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佛敎의精神을 반영, 창달해 왔는가。宗立大學으로서의 使命과 특징을 얼마만큼 살려왔는가? 여타의 大學에서는 볼 수 없는 東大 特有의 精神性과 그實踐躬行을위해 얼마만큼이나 노력 정진해왔는가?

더욱 韓國의 대학들이 외국의 그것에 비해 깊이 年淺한 탓으로 일찍 독자적인 性格形成의 階梯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자기변명할지라도 東大의 경우는 그와는 사정이 전연 다르다。大學目標의 年輪을 비록 짧다고할 지라도 그가 거기에 서 있는 佛敎의 역사는 세계 어느 宗敎보다도 앞섰을뿐 아니라, 韓民族의 精神形成에 미친 영향의 많고도 年條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追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동기로 東大는 여타의 大學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열격한 自己反省이 가해져야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그와 동시에 우리는 東大의 佛敎精神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인 대학이념의 모색과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코끼리와 蓮꽃이 뜻하는 것

李 載 昌 <哲博·佛敎大敎授>

○……코끼리와 蓮꽃이……○
○……각각 어떤 意味……○
○……를 內包하고 있……○
○……는가를 알기 위……○
○……해서도 그것들이……○
○……佛敎와 어떤 관……○
○……련이 있는가를살……○
○……펴 보는 것이 은……○
○……당한 방법인줄로……○
○……생각한다。……○
○…… <本文中에서> ……○

〈1〉

우리 東國大學校는 佛敎宗立大學이며 또한 그 建學理念도 佛敎精神의 具顯에 있기때문에 學校를 상징하는 모든것이 佛敎的이거나 또는 佛敎와 매우 관련이 깊게 마련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여기에서 말하려는 象徵獸인 코끼리와 象徵花인 蓮꽃의 경우 역시 이러한 特性을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 코끼리와 蓮꽃이 각각 어떤意味를 內包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佛敎와 어떤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것이 온당한 방법일줄로 생각한다。

〈2〉

우선 심불적 애니멀인 코끼리에 대해서 살펴 보자。코끼리에 대해서는 몇가지 經典에 보이긴 하나 코끼리와 佛敎와의 관계는 뭐니 뭐니해도 釋尊의 입태說話를 통해 밀접하게 관련지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즉 淨飯王의妃 摩耶夫人이 어느 날 밤 하늘로부터 흰 코끼리가 내려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釋尊을 잉태하였다는 것이다。이러한 입태說話는 本緣部經典의 여러곳에 보이는데 그중 「佛本行集經」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음과같이 자세하게 表現되어 있다。

즉 어느날 밤, 한 마리의 여섯 이빨을 한 흰 코끼리가 머리는 붉은 빛이고 일곱가지 七支)로 땅을 버티며 숲으로 이루어진 金山으로부터 내려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보면 그 코끼리가 낳은 아들은 모든 王중에서 제일가는 王이 되며, 만약 어머니 꿈에 흰 코끼리가 오른 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보면 그가 낳은 아들은 三界에서 더없이 높은 어른이 되어 모든 衆生을 利益케 하고 친할과 원수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게 다 平等하며 저 깊은 번뇌의 바닷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건진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고오타마 싯다르타」이었고 그는 뒤에 道를 이루어 「불타」와 白象은 둘이 아닌 하나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釋尊을 가리키는 表現중에 「象王」이 있는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釋尊의 잉태說話와 어떤 脈絡이 있는듯한 것으로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에 보이는 白象이 있다。즉 同經에는 「普賢菩薩이 東方의 淨妙國土로 오고자 하여 智慧刀으로서 白象을 타고있는데 그 코끼리는 6개의 어깻이고 七支로 땅을 디디며 그 七支아래에 七蓮花가 生하고 있다。그 코끼리의 빛깔은 鮮白하며 흰 것중의 으뜸이다」라 하였는데 七支가 兜率天에서 下降하여 摩耶夫人 품속에 잉태되는 白象과 外形上 同一하다。

餘他의 經典에 보이는 코끼리는 대개 譬喩로 引用되고 있으니 예컨대 「法句經」象喩品에 보이는 「전장에 나가 싸우는 코끼리가 화살을 맞아도 참는 것처럼 나도 세상의 헐뜯음을 참으며 항상 정정으로 남들구하자」(三一〇) 라던가 「도를 즐기어 放逸하지 않으며 항상 잘 스스로 마음을 지켜 身苦(번뇌)에서자기를 救濟하라。

〈3〉

그러면 蓮꽃은 또 어떠한가。앞에서 살핀 코끼리의 경우에는 釋尊의 本生說話와 관계가 있었지만 蓮꽃의 경우는 本生說話와는 無關하다。그러나 蓮꽃의 性質과 佛法의 本質이 同一하다고 할 수가 있다。이는 곧 兜率天으로부터 下降하는 佛本生의 說話인바 이러한 꿈얘기를 들은 淨飯王은 나라안의 占夢家들을 불러놓고 解夢케 하였던바 그들은 입을 모아 이는 곧 胎夢인데 만약 어머니 꿈에 해가 오른 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轉輪聖王이 되고, 만약 어머니 꿈에 달이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보면 그가 낳은 아들은 부처님이 될것이라고 判斷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싶이 蓮꽃은 항상 물속에서 자라 꽃을피는 植物이다。그러한 蓮꽃의 本質이 깨끗하여 바탕이 물에 젖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들어 白蓮을 이들으로 치고 있다。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法華經」의 原名이 「正(妙)法의 白蓮華經(saddharma Punbarika Sutra) 이라든가 「悲華經」의 原名이 「慈悲의 白蓮華經」(Karuna Pundarika mahayana suta) 이라는 것에서 알수가 있다。

이때의 經名에 보이는 白蓮華(華는 花와같음)는 곧 釋尊을 가리키는바 他語佛이 淨土에서 成佛하여 그곳에서 安住한것에 대해 釋尊을 五濁惡世인 이곳에 나와 五濁惡世의 穢土에서 成佛하고 몸 衆生을 濟度한 것을 비유, 찬양하여 일컬어진 말이다。

다시말하면 一切衆生을 濟度함에 있어서 穢土에 머물러 그 穢土를 淨土化에 한 釋尊을 연꽃이라고 할때 釋尊을 그 중에서도 부처한 자비를 지닌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佛敎와 연꽃과의 同質性을 알수가 있다。處染常淨의 人物이 釋尊이라면 處染常淨의 植物을 연꽃 그중에서도 白蓮이 되며, 處染常淨 그자체가 佛法이므로 연꽃을 곧 佛法이라고도 할수가 있는것이다。

蓮꽃의 性質은 佛法과 同一

코끼리는 釋尊의 本生說話와 관련

合掌례에서 나오는 코끼리처럼」(三一七)
또는 中阿含의 「象跡喩經」에 솔레佛이 「限量없는 善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四聖諦에 꺼잡히어 그 속에 들어온다。그래서 四聖諦를 一切法중 第一이라 한다。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마치 모든 짐승의 발자욱에 제일 큰 것은 코끼리의 발자욱을 제일로 삼는 것과 같다。百千의 다른 비유가 있지만 모두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百折不屈의 精神, 그것은 自我批判에의 각성과 함께 東大精神의 다른 측면일 수 있을 것이다。

理想追求的인 求道者의 자세와 年輪追求的인 기상과 底力을 상기하면 족할 것이다。

우리 東大는 격려와 나라의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에살고 제구실을 다하는 데 충실하고 또 勇敢했는가? 3·1운동과 光州學生사건 때의 빛나는 靑春肉彈的 勇氣의 발휘는 문헌이 가리키는 바 그대로이거니와 우리가 목도한 4·19의 함기에서는 경우에 다가도에의 최선봉장이 됐수 있는 사자분신의 佛子精神을 기록하고도 있다。東大의 現代史는 靑春集團으로서의 大學의 명예에 큰빛을 던져주는 항홀속에서 그 서막을 열었다고 하자。그러나 그로부터의 조국근대화과정에서 황홀한 歷史의 소유자였던 東大는 대체 여기에 무엇을 보탰수 있었던가? 위대한 生命體는 노상 外部로 작용할 수 없을 뿐더러 內部로 작용하는 법이다。

東大의 現代人의 가질 수 있는 유일의 자랑거리는 그러나反省과 自我批判의 정신 속에서만 찾을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학생시절의 東大의 전통과 憧憬과 꿈과 探險精神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정해정이나 자랑이나 젊은이나 다지고 보면 모두 大學 속의 바람직한 알맹이들이고 보면 이들은 결국 大學속의 異質物이 아닌 같은 同質物인 바에야 대학은 당연적으로 영원한 靑春性에 불타는 그래서 언제나 젊게 언제나 새롭게 성장발전하는 生命性을 지닌 理想主義集團의 마지막 교두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이 교두보가 무너지는 날, 나라와 겨레는 비참한 最後를 맞이하게 될것이다。우리는 여기서 「독일국민에게 告함」의 결구가 되는 「讀書이 쓰러지는 날, 人間性 전체가 여러분과 內部로 작용해 들어가는 범이어늘, 大東大의 생명과 청춘은 어디를 향하여 理想의 봉화를들 였단말인가? 東大의 現代는 노쇠한 나라들이 흔히 그렇듯이, 祖上과 과거의 업적 따위는 불문에 붙여 두기로 하자。과거를 팔고 사라진 빛을 재탕하고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 젊고 未來에의 기대가 너무 크다。얼마간의 꼰대따위는 유구한 歷史 속에선 아무것도 아니며, 그 일시적인 답보는 二步前進을 위한 一步의 後退가 되고도 남을

建學理念과 教育方針

教育理念과 大學의 理念

開校71周年紀念特輯

知識의 大衆化 현상과 아울러 점차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大學은 더욱 심각한 自己 비판의 회의와 만나게 된것이다. 더우기 宗教的 理念을 건학 정신으로 한 宗立大學의 경우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理想과 現實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현대 大學理念의 특징

현대대학의 이념이 갖는 특정은 목적대학으로서의 분류형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①순수 교양과 고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②학문연구의 수준을 고도로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한 대학

③미술 음악을 숭권으로하는 예술의 대학

④종합화로의 교양영을위한 대학등이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하는 경우 가 많았지만 요점에 와서는 인구의 증대와 국가의 확립과 더불어 이것을 사회국가라는 측면에서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에게 내포된 가치와 능력을 최고도로 구현시켜서 새로운 문화적가치를 창조하게 하자는것이고, 이로써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문화의 수준을 최고도로 유지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人間性의 적극적인 긍정과 능력발전을 중요한 목적으로 강조하는 인류문화에 커다란 업적을 조성한 셈이다. 인간의 能은 정말로 無一物일까 하는 열속한 반성은 결코 인간성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限界과 그 한계성을 깨닫게 함으로서 스스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하나 학문을 연구하여 나갈때 우리 민족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여 근대민족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現代 大學理念의 思想的 배경

이러한 대학의 이념이 발달에 영향을 준 사상적배경은 한마디로 인간성의 존엄성이다. 말하면 인간의 자각이 높은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에 싹터서 종교개혁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산업혁명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욕을 조장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에 와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3)大學理念에 제기되는 새로운 課題들

현재 대학의 이념이 사회의 요청에 응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각 기관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면 대학은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면 대학은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면 대학은 사회가

韓国大学의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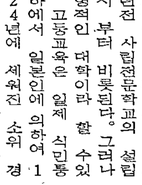
○……大學과 宗敎와 社會와의 관계는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우
○……기 韓國私學의 태반이 宗敎的 이념을 건학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은 주목할만 하다. 大學과 宗敎의 관계는 그처럼 밀접한 까닭이다.
○……現代는 高度한 産業文明社會를 맞이하여 역기능적으로 사못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大學도 그 전통적인 진리탐구의 기능에서

大學과 社會發展

洪榮伯 ▲師範大·助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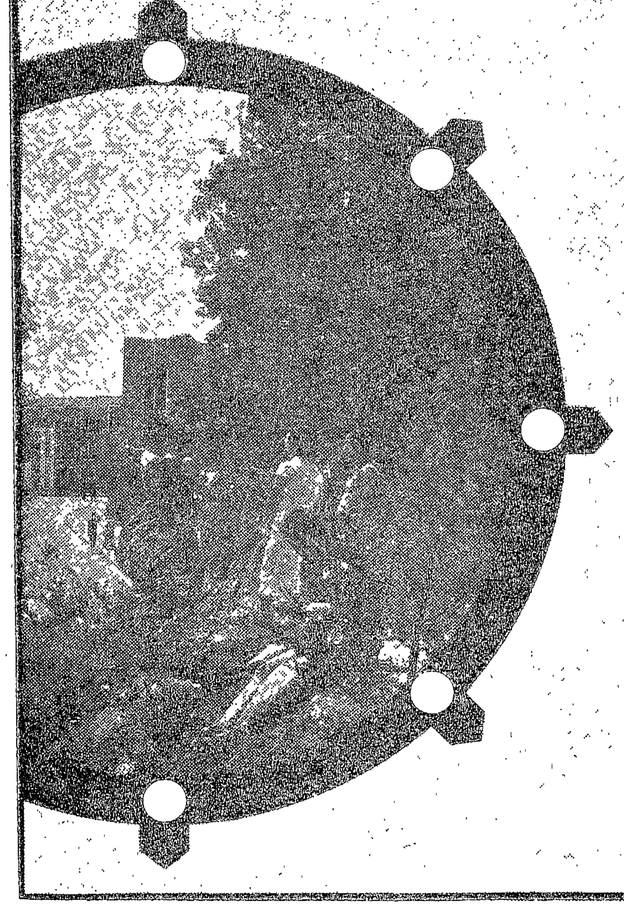
韓國大學의 現實과 理想

金鎔貞 ▲佛大助敎授·哲博



反價値的 俗物化경향 止揚
創造的 自由의 理想固守

▲서울大 敎授 李 泰 鎭



高等실업자의 過剩供給문제
知識과 삶의 喜悅 관련돼야
大學의 生命, 열린 思考에

▲서울大 敎授 李 萬 甲

를和調 向方育敎 的目立設
全人的 人間形成주력해야
믿음의 宗敎敎育開發 시급

▲서울大 敎授 李 萬 甲

祝 韓國敎育開發院 設立

한국자동차보험(주) 대표이사 박 은 회
동대문 상가 아파트 사장 구 영 학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삼 성 출 판 사
세광무역 주식회사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명 로 전무이사 권 영 필
제1무임소장관 정책조정실 실장 조 봉 봉 조양상선 주식회사 이사 박 재 준
종화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치 건 방림방적 주식회사 이사 서 재 희
변호사 송 기 성 국제화학 주식회사 이사 강 재 성

大學傳統과 社會正義

傳統의 權威위에 未來像을

權 一 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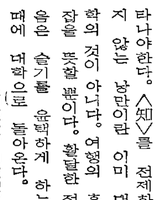
大學을 영어로 University라 한다。이 大學이라는 단어의 uni는 「單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럼나 大學에 있어서의 uni는 무미건조한 획일성을 가리키는것

이 아니라、大學구성원의 個性은 和合하지는 調化할 수 있다。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類型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또는 간접으로 많은 經驗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삶을 꾸려나간다。大學은 이런 經驗의 개성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場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위 전인된인물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大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大學의 전통이란 그 건물、그 캠퍼스、그 교수진、그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그 낱낱의 분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내는 학풍의 이름이다。

대학의 모든 구성분자는 따라서 이 학풍의 수립과 그 줄 아는 겸허의 손이 학문의 근간을 떠받들어야한다。



그러나 운영은 학풍 창조를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운영이 학문에 우선하면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된다。운영은 그만큼 학문의 현실、학문의 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때로 현실추의적인 사조가 들어 학문의 방향을 실리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있어나 그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위협한다。

또 언뜻한 대학을 방만의 전당이라는등하여 젊음의 발산적로 인식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방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방만이란 실로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자의 철퇴임이오、따라서 대학의 방만이란、아직 은 눈에 띄지 않는 미지의 것을 향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빛나야한다。〈知〉를 전제하지 않는 방만이란 이미 대학의 것이 아니다。여행의 흔잡을 뿐할 뿐이다。활달한 젊음을 슬기롭게 운영하게 하는 대에 대학으로 돌아온다。

〈師範大·助敎授〉

時代的 問題直視 필요해

金 恒 培

世界를 동과서로 나누어보는 方法은 다소 뒤늦은 감이없지 않으나 文化的傳統이라는것을 수천회의 역사적변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安易하게 종합하려 하거나比較하려 하는것도 위험한 일이다。보편성이라는것은 특수성을 초월한 보편적 실재라는 생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그특수성이 人間의 本質이나 本性에 바탕을 둔것일때 그것은 이미 보편에로통할수 있는 길이 열려져있는 것이다。그럼므로 大學의 전통도 東西로 나누어 생각해봄직하다。

西歐에 있어서 大學의 전통은 프라톤이 창설했다고전해지는 아카데미아에 그연원을둔다。

이 아카데미아는 거짓된 인간의 삶이 아닌 참된 智慧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므로 보아 이 정적 사유능력을 폭넓게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主된 목적이 되었다。

프라톤은 인간의 마음을 理性、氣概、欲望으로 삶분하여 이상적인 調和를 인간형으로 보았다。따라서 프라톤의 교육목적은 이상적인간형의 육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되였고、인간의 自由로운정신과 창조의지가 고취되였다。또한 자연과학적 연구의 成果를 활용하여 거대한 기계를 제작하였고、이에 따라 産業혁명이 발생하였다。이에 社會의 변화는 교육내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므로、근세이후의 大學은 機能的이고 조직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機能人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중요한 임무였다。즉 이상적 인간을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요구에 적응할수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用具文化의 급격한 성장과 價値體系에 대한 旣成의 불균형으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지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지난날의 규범과 가치를 송두리째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人間과 人間사이의 정신적 交流를 통해서 精神文化는 끊임없이 承繼되고 發展되어왔다。傳統의 經典의 體系를 이루었다。

인도인에게 있어서는 삶이란 享有할 것이 아니라 克服되여야 할 것으로 理解되였다。따라서 敎育이란 고통스러운 정진을 의미하였다。물질을 다루는 기술과는 구분되어져야 하려고 노력해왔다。大學 그곳은 바로다름아닌 이 문화의 책임맡고 있는곳이다。

또한 그 시대의 문제를 直視하고 이에 대해 지혜로운 응답을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한다。現代처럼 예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하나의 시대가 맹목적 인 충동에 의해 무장하고、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되풀이해서 만들고 있을때、大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가라앉혀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있게 하여 주어야 할것이다。

〈哲學科·敎授〉

能動的 歷史創造를

李 治 洙

丹齋 申采浩先生은 朝鮮上古史의 서문에서 「歷史란 무엇이뇨、人類社會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공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시간부터 확대하는 心的活動의 상황의 기록이다」라고 말하고있다。이말을 곧

Aristoles의 인간이란 Zoon Politikon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런 歷史의 흐름속에서 우리 大學人은 오늘날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內部와의 熾烈한 갈등에서 歷史의 方向을 찾고 歷史를 創造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왜 大學을 다니며、學問에 接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은 오늘날의 大學人들의 根本的인 問題인 것이다。

오늘날 現代社會는 고도의 科學文明發達로 말미암아 인간의 特性이 沒個性化、劃一化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말려 우리社會에선 大學을 자기의 個性에 따라 취득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실력에 의해 決定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럼므로 大學이 진정 學問의 전당으로서의 각박문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既成權威에 대한 도전、觀念論的 허위비판 각성된 民衆의 자유의지 등이 강한 현장정속에서 表現되고 있는 民俗劇、「나의 꿈」 재천(印哲·2)군은 설명한다。지난해 11月 첫모임에 올해 1월5일부터 매주 목요일 연습한 다음 봉산탈춤 기능보유자 「人間文化財」 金先峰씨로부터 약 한달간 봉산탈춤의 眞髓를 전수받았다。

그때만해도 썩을물을 배정받지 못해 연습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못하고 민속극의 뜨개가 파져 송을 뚫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교가 불교宗立大學을 감안할때 꿍연상의 문제점、연기력 향상을 연습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점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으나 해보겠다는 열띤 의욕으로 극복해가며 연습에 열중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아직 썩을물을 배정받지 못해 연습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못하고 민속극의 뜨개가 파져 송을 뚫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교가 불교宗立大學을 감안할때 꿍연상의 문제점、연기력 향상을 연습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점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으나 해보겠다는 열띤 의욕으로 극복해가며 연습에 열중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그럼기에 Descartes의 方法敍說에 나오는 Ich denke, also bin-ich(정도는 알아야하며 Kant의 先驗哲學과 소렌하우에 充足理由根據定도는 알아야 한다。

우리 歷史의 흐름속에 공헌한 民族의 偉人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法政大·行政科〉

東國 71돌… 智慧·慈悲·精進의 合唱

도校閉制强 엔期黑暗帝日 …校開末韓舊

勇猛 精進하는 코끼리 氣象으로 도약

◇金 昌 熙 교수作 「飛」

○……祈願을온누리에띨치며

하나에서 일분하나까지 제어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빛이 번득인다。이 우주에 가득찬 빛이 조금씩 몸을 흔든다。그과장의 심연에서 東國은 찬란한 불꽃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전등을 調和된 미래 지향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 집착적인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사회에서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므로 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연의 明白한 使命이 있는 것이다。이 같은 대학의 사명이란 결코 과거에 대한 사명이라 할 수 없이 대학은 항상 未來指向的이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사명을 지닌 대학의 傳統과 大學像은 自他가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經商大·電算科〉

○……東國大學校로 昇格

오라。누구나 寶의 언덕으로。다 오라。이 三千人間은 언제나 안게 걷히는 자리리고、아침 안개 걷히는 자리에 東國人이 열어놓은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類型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또는 간접으로 많은 經驗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삶을 꾸려나간다。大學은 이런 經驗의 개성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場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위 전인된인물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大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大學의 전통이란 그 건물、그 캠퍼스、그 교수진、그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그 낱낱의 분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내는 학풍의 이름이다。

대학의 모든 구성분자는 따라서 이 학풍의 수립과 그 줄 아는 겸허의 손이 학문의 근간을 떠받들어야한다。

그러나 운영은 학풍 창조를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운영이 학문에 우선하면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된다。운영은 그만큼 학문의 현실、학문의 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때로 현실추의적인 사조가 들어 학문의 방향을 실리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있어나 그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위협한다。

또 언뜻한 대학을 방만의 전당이라는등하여 젊음의 발산적로 인식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방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방만이란 실로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자의 철퇴임이오、따라서 대학의 방만이란、아직 은 눈에 띄지 않는 미지의 것을 향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빛나야한다。〈知〉를 전제하지 않는 방만이란 이미 대학의 것이 아니다。여행의 흔잡을 뿐할 뿐이다。활달한 젊음을 슬기롭게 운영하게 하는 대에 대학으로 돌아온다。

〈師範大·助敎授〉

○……祈願을온누리에띨치며

하나에서 일분하나까지 제어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빛이 번득인다。이 우주에 가득찬 빛이 조금씩 몸을 흔든다。그과장의 심연에서 東國은 찬란한 불꽃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전등을 調和된 미래 지향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 집착적인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사회에서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므로 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연의 明白한 使命이 있는 것이다。이 같은 대학의 사명이란 결코 과거에 대한 사명이라 할 수 없이 대학은 항상 未來指向的이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사명을 지닌 대학의 傳統과 大學像은 自他가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經商大·電算科〉

○……東國大學校로 昇格

오라。누구나 寶의 언덕으로。다 오라。이 三千人間은 언제나 안게 걷히는 자리리고、아침 안개 걷히는 자리에 東國人이 열어놓은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類型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또는 간접으로 많은 經驗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삶을 꾸려나간다。大學은 이런 經驗의 개성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場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위 전인된인물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大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大學의 전통이란 그 건물、그 캠퍼스、그 교수진、그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그 낱낱의 분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내는 학풍의 이름이다。

대학의 모든 구성분자는 따라서 이 학풍의 수립과 그 줄 아는 겸허의 손이 학문의 근간을 떠받들어야한다。

그러나 운영은 학풍 창조를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운영이 학문에 우선하면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된다。운영은 그만큼 학문의 현실、학문의 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때로 현실추의적인 사조가 들어 학문의 방향을 실리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있어나 그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위협한다。

또 언뜻한 대학을 방만의 전당이라는등하여 젊음의 발산적로 인식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방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방만이란 실로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자의 철퇴임이오、따라서 대학의 방만이란、아직 은 눈에 띄지 않는 미지의 것을 향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빛나야한다。〈知〉를 전제하지 않는 방만이란 이미 대학의 것이 아니다。여행의 흔잡을 뿐할 뿐이다。활달한 젊음을 슬기롭게 운영하게 하는 대에 대학으로 돌아온다。

〈師範大·助敎授〉

○……祝願을온누리에띨치며

하나에서 일분하나까지 제어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빛이 번득인다。이 우주에 가득찬 빛이 조금씩 몸을 흔든다。그과장의 심연에서 東國은 찬란한 불꽃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전등을 調和된 미래 지향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 집착적인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사회에서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므로 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연의 明白한 使命이 있는 것이다。이 같은 대학의 사명이란 결코 과거에 대한 사명이라 할 수 없이 대학은 항상 未來指向的이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사명을 지닌 대학의 傳統과 大學像은 自他가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經商大·電算科〉

○……東國大學校로 昇格

오라。누구나 寶의 언덕으로。다 오라。이 三千人間은 언제나 안게 걷히는 자리리고、아침 안개 걷히는 자리에 東國人이 열어놓은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類型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또는 간접으로 많은 經驗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삶을 꾸려나간다。大學은 이런 經驗의 개성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場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위 전인된인물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大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大學의 전통이란 그 건물、그 캠퍼스、그 교수진、그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그 낱낱의 분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내는 학풍의 이름이다。

대학의 모든 구성분자는 따라서 이 학풍의 수립과 그 줄 아는 겸허의 손이 학문의 근간을 떠받들어야한다。

그러나 운영은 학풍 창조를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운영이 학문에 우선하면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된다。운영은 그만큼 학문의 현실、학문의 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때로 현실추의적인 사조가 들어 학문의 방향을 실리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있어나 그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위협한다。

또 언뜻한 대학을 방만의 전당이라는등하여 젊음의 발산적로 인식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방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방만이란 실로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자의 철퇴임이오、따라서 대학의 방만이란、아직 은 눈에 띄지 않는 미지의 것을 향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빛나야한다。〈知〉를 전제하지 않는 방만이란 이미 대학의 것이 아니다。여행의 흔잡을 뿐할 뿐이다。활달한 젊음을 슬기롭게 운영하게 하는 대에 대학으로 돌아온다。

〈師範大·助敎授〉

民俗劇 研究會

辯代 識意與參 의生學大

劃計 등會演講 劇俗民

◇봉산탈춤 공연에서

서클순례 <8>

전통의 斷絶時代에서 사라져가는 민족고유의 民俗劇을 재현시키려는 취지아래 결성된 民俗劇研究會(회장=韓炳喜·工經2)는 비록 창설된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되었지만 그활동과 열의는 기존 어느 써클에 못지 않다。

70년대 들면서 大學街의 문화활동 양상중 가장 두드러진특징은 민족고유의 「우리의 것」 보존이란 소박한 企圖에서 출발한 民俗劇의 붐을 들수 있는데、이때를 전후로 民俗劇단체가 생겨 났고、이에 발맞추어 본교 民俗劇研究會가 발족한것은 지난해 11월말 몇몇 민속극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였다。

既成權威에 대한 도전、觀念論的 허위비판 각성된 民衆의 자유의지 등이 강한 현장정속에서 表現되고 있는 民俗劇、「나의 꿈」 재천(印哲·2)군은 설명한다。지난해 11月 첫모임에 올해 1월5일부터 매주 목요일 연습한 다음 봉산탈춤 기능보유자 「人間文化財」 金先峰씨로부터 약 한달간 봉산탈춤의 眞髓를 전수받았다。

그때만해도 썩을물을 배정받지 못해 연습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못하고 민속극의 뜨개가 파져 송을 뚫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교가 불교宗立大學을 감안할때 꿍연상의 문제점、연기력 향상을 연습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점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으나 해보겠다는 열띤 의욕으로 극복해가며 연습에 열중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아직 썩을물을 배정받지 못해 연습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못하고 민속극의 뜨개가 파져 송을 뚫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교가 불교宗立大學을 감안할때 꿍연상의 문제점、연기력 향상을 연습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점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으나 해보겠다는 열띤 의욕으로 극복해가며 연습에 열중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그럼기에 Descartes의 方法敍說에 나오는 Ich denke, also bin-ich(정도는 알아야하며 Kant의 先驗哲學과 소렌하우에 充足理由根據定도는 알아야 한다。

우리 歷史의 흐름속에 공헌한 民族의 偉人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法政大·行政科〉

東國 71돌… 智慧·慈悲·精進의 合唱

도校閉制强 엔期黑暗帝日 …校開末韓舊

勇猛 精進하는 코끼리 氣象으로 도약

◇金 昌 熙 교수作 「飛」

○……祈願을온누리에띨치며

하나에서 일분하나까지 제어보면 거기에는 무수한 빛이 번득인다。이 우주에 가득찬 빛이 조금씩 몸을 흔든다。그과장의 심연에서 東國은 찬란한 불꽃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전등을 調和된 미래 지향적인 것이지 결코 과거 집착적인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사회에서 선택된 자들이 모인 곳이므로 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연의 明白한 使命이 있는 것이다。이 같은 대학의 사명이란 결코 과거에 대한 사명이라 할 수 없이 대학은 항상 未來指向的이어야 할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사명을 지닌 대학의 傳統과 大學像은 自他가 周知하는바、오늘도 목력산기슴에서 그 東國人의 얼붙이어 浩然之氣를 때우며 學理探究的이며 색채歷史創造에 능동적인 남산 코끼리가 되어야겠다。

〈經商大·電算科〉

○……東國大學校로 昇格

오라。누구나 寶의 언덕으로。다 오라。이 三千人間은 언제나 안게 걷히는 자리리고、아침 안개 걷히는 자리에 東國人이 열어놓은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類型의 사람들을 만나 직접、또는 간접으로 많은 經驗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삶을 꾸려나간다。大學은 이런 經驗의 개성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場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친 소위 전인된인물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大學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大學의 전통이란 그 건물、그 캠퍼스、그 교수진、그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그 낱낱의 분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어내는 학풍의 이름이다。

대학의 모든 구성분자는 따라서 이 학풍의 수립과 그 줄 아는 겸허의 손이 학문의 근간을 떠받들어야한다。

그러나 운영은 학풍 창조를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운영이 학문에 우선하면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된다。운영은 그만큼 학문의 현실、학문의 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때로 현실추의적인 사조가 들어 학문의 방향을 실리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있어나 그도 대학의 존재이유를 위협한다。

또 언뜻한 대학을 방만의 전당이라는등하여 젊음의 발산적로 인식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방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방만이란 실로 미래 역사에 대한 창조자의 철퇴임이오、따라서 대학의 방만이란、아직 은 눈에 띄지 않는 미지의 것을 향하는 전진적인 자세가 빛나야한다。〈知〉를 전제하지 않는 방만이란 이미 대학의 것이 아니다。여행의 흔잡을 뿐할 뿐이다。활달한 젊음을 슬기롭게 운영하게 하는 대에 대학으로 돌아온다。

〈師範大·助敎授〉

大學人의 벗

大鮮 梅實酒 養命酒

■ 梅實酒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

▲ 梅實酒의 藥效와 効能

옛부터 梅實은 漢方에서 藥劑로 利用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며, 이웃 日本에서는 梅實 절임용(梅干)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으며 特히 梅實은 그속에 능금산, 구연산 주석산을 비롯, 여러가지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梅實에 함유된 「구연산」은 근육피로를 풀어주며 동맥경화증 예방에 특효가 있어 梅實酒를 즐겨 찾는다는 것이다. 또 漢方에서 使用되는 烏梅(덜익은 梅實의 과육을 煙氣를 쏘여 말린 검은 빛깔의 梅實)는 消化기능과 肝기능을 좋게해 주며 이질과 뻐쑤시는 것도 다스리는 特効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얼음을 곁들이거나 차게하여 자시면 더욱 좋은 술이 됩니다。

大鮮釀造場

부산 ⑥ 5821~4 서울출장소(792)5765~6

祝 發展

무궁한 繁榮을 祈願합니다

동국대학교 동창회

회장 최재구
부회장 문태식
" 김복유
" 황명수
" 박은희
" 박경희
" 정임순
사무국장 윤영천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상담역이 되고 나아가 내일에 발전의 key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은행입니다。

지점장 서 덕 규

대구은행 서울지점

국내최고의 국제관광호텔

(객실 540 및 국제급 각종 연회장 및 부대시설 완비)

대표이사 권 혁 중

태평개발주식회사

서울 프라자 호텔

開校71周年

敎育救國의 精神을 再確立

"民族의 現實直視, 大學의 使命다짐"

郭鍾淳씨등 長期勤續·勤務者 表彰

8일(日)로 開校71周年을 맞이한 本校는 지난 9日(月) 午前 10時30分 中講堂에서 盛大한 紀念式을 개최, 71年의 빛나는 大學史를 발판으로 建學理念의 구현과 飛躍의 전진을 다짐했다. 尹喜重 이사장, 李瑄根총장, 崔載九 동창회장을 비롯한 本校 內外 인사와 在學生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紀念式은 三師依體로 시작, 東國大學校 沿革보고, 總長式辭, 理事長告辭順으로 진행, 四弘誓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다하여 새 동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어 佛敎會宗正 李靑潭총무원장의 祝辭와 崔載九동창회장의 祝辭가 있었다.

2部大生들의 모임인 東岳二友會 (大상수=2部二經·2)에서는 東國祝典을 맞아 지난10일 鍾路老人會館에서 1백여명을 초청 분수대 주변에서 경로잔치를 가졌다.

개교71주년 기념축제에 앞서 이 경로잔치는 1部에서 鄭允武학생처장의 人事와 金仁鴻교무처장의 격려사에이어 鍾路老人會 지부장 김재영님이 제2부 에술제, 제3부 佛敎합창단발표회로 나뉘어열렸다.

제1부 受戒대법회는 10시에 正覺院에서 열렸는데 尹喜重이사장을 증명戒師 李智冠(正覺院원장) 박사를 전계사로하여 영분된 統一祖國을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尹喜重이사장은 告辭를 통해 『現代는 慈悲의 실천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된다』고 말하고 『모든 東國人은 佛敎精神에 입각하여 근면성실하게 責任을 다하여 새 동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어 佛敎曹溪宗 慈雲總務院長의 告辭와 崔載九동정회장의 祝辭가 있었다.

勤續한 鄭錤淳씨등 長期勤續·2)에서는 東國祝典을맞아 지난10일 鍾路老人會館에서 1백여명을 초청 분수대 주변에서 경로잔치를 가졌다.

개교71주년 기념축제에 앞서 이 경로잔치는 1部에서 鄭允武학생처장의 人事와 金仁鴻교무처장의 격려사에이어 鍾路老人會 지부장 김재영님이 제2부 에술제, 제3부 佛敎합창단발표회로 나뉘어열렸다.

제1부 受戒대법회는 10시에 正覺院에서 열렸는데 尹喜重이사장을 증명戒師 李智冠(正覺院원장) 박사를 전계사로하여 영분된 統一祖國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尹喜重이사장은 告辭를 통해 『現代는 慈悲의 실천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된다』고 말하고 『모든 東國人은 佛敎精神에 입각하여 근면성실하게 責任을 다하여 새 동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어 佛敎曹溪宗 慈雲總務院長의 告辭와 崔載九동정회장의 祝辭가 있었다.

二友會서 敬老잔치

장기자랑등 多彩

2部大生들의 모임인 東岳二友會 (大상수=2部二經·2)에서는 東國祝典을맞아 지난10일 鍾路老人會館에서 1백여명을 초청 분수대 주변에서 경로잔치를 가졌다.

개교71주년 기념축제에 앞서 이 경로잔치는 1部에서 鄭允武학생처장의 人事와 金仁鴻교무처장의 격려사에이어 鍾路老人會 지부장 김재영님이 제2부 에술제, 제3부 佛敎합창단발표회로 나뉘어열렸다.

제1부 受戒대법회는 10시에 正覺院에서 열렸는데 尹喜重이사장을 증명戒師 李智冠(正覺院원장) 박사를 전계사로하여 영분된 統一祖國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尹喜重이사장은 告辭를 통해 『現代는 慈悲의 실천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된다』고 말하고 『모든 東國人은 佛敎精神에 입각하여 근면성실하게 責任을 다하여 새 동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어 佛敎曹溪宗 慈雲總務院長의 告辭와 崔載九동정회장의 祝辭가 있었다.

敎養學部 讀書콩쿨

1位에 申致雄君

지난 7日(土) 오후1시 敎養國書室에서는 敎養學部 主催 제3회 宗敎祭 藝術, 合唱團발표

제3회 宗敎祭가 10일 오전10시와 오후1시30 正覺院과 중앙동에서 각각 열렸다.

개교71주년 東國축전의 일환으로 학도호국단 宗敎部 (부장 鄭凡慶·불교4)에서 개최하는 중

——開校 七十一周年에 부치는 詩——

타오르는 횃불

박 진 관

타오르는 횃불이여,
내 마음에서 솟을 자유등
내 위에서 솟아 오르는 샘물같이도
영원의 언덕에서 타오르고 있다.

여기에 靈魂의 光明이 있고
여기에 永遠한 眞理의 廣場이 있다.
우리는 슬기롭게 왔다가
슬기롭게 우리가 자는 날
우리는 眞理의 우람을 배운다.

千年도 萬年도 너 오배도록
靈魂을 가슴 깊이에 흐르는 사랑처럼
불타올 마음는 百도들 같이
情熱에 아니런 믿음에 살아라.

타오르는 횃불이여,
하늘보다도 높이 타오르고
바다보다도 넓은 품속에
우주의 宇宙神이 되어
의 廣場에 驅走의 光明을 높으시라.

信仰으로서 자라온 世上
우리는 이 언덕에 아직도 서 있다.
偉業의 목소리 정렬의 갈망
소리금 높이고 달음 새우듯
우리는 굳차게 굳차게
타오르는 횃불을 돌고
정통의 廣野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긴다.

(4面 4段 大學에 計속)

敎養學部 讀書콩클 入賞作

落書와 對話

李 正 寬

어떤 면으로는 落書上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구체적인 사소통을 불가능할것이지만.

光州 H고교를 본으로 낙서의 일례

「A=한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사람의 短點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B=한 사람을 미워하려는 그 사람의 長點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우리네 도서관이 지금은 페인트 칠이되어 말쑥해졌지만, 이전에는 落書로 된 名畵는 많이 있었다。

「車窓도 없으면서 타기는 왜타。」라는 답도나 욕즉하다。

「서로 마주 하는 이야기」로 定義한다면 낙서상의 대화는 약간 토요일의 要素가 다르다。 즉 一方通行的 獨白의 組合이라고나 할까? 落書가 한 人間의 獨白이라고 한다면, 그에대한 答 또한獨白에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獨白의 낙서상의 대화는 재미있는 작실거리다。 그것은 현화시중의 미소를 띄놓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純粹한 人間形態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같다。 그러므로 낙서도 에 관한 청경구절을 들였지만 그것이 그의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것은 아니였다。

그러 그는 「소나」의권고를 생각해내고 헨나아 광장 한가운데에 엎드려 대지에 입을 맞추지만 그 때도 역시 후회까지는하지않았다。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자살소식을 들은 충동적으로 자수할 결심을 했을때에도 아직 후회하지않고있었다。 다만 의식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였던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소나」의 感化에 자수를 결심한 「라스콜리니꼬프」는 8년의 형을 선고받아 시베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재생의길을 걷게된다。 그는 시베리아의 옥중에서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서를 손에잡고 지난 여름 하숙집울주하려 광희국민학교 뒷골목을 지나다가 참 그럴듯한 벽보 쪽지에 크게 놀란적이 있다。

「전당표 ㉣××× 명령해전 某宗教에서 天堂行 列車표를 팔았다더니 바로 어디로구나 했는데, 기실은 전당포를전당포로 둔갑시켜 놓았던것이다。

소위 낙서에 관심을가지고 있는 자신을 느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체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3자의 눈에는 전혀 장피를 잡을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는 자기의 죄를 더욱 후회하고 마음속의 무거움을 덜기 위해 광장 한가운데 엎드려 대지에 입을 맞추지만 그 때도 역시 후회까지는 하지않았다。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자살소식을 들은 충동적으로 자수할 결심을 했을때에도 아직 후회하지않고있었다。 다만 의식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였던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소나」의 感化에 자수를 결심한 「라스콜리니꼬프」는 8년의 형을 선고받아 시베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재생의길을 걷게된다。 그는 시베리아의 옥중에서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서를 손에잡고 지난 여름 하숙집울주하려 광희국민학교 뒷골목을 지나다가 참 그럴듯한 벽보 쪽지에 크게 놀란적이 있다。

「전당표 ㉣×××× 명령해전 某宗教에서 天堂行 列車표를 팔았다더니 바로 어디로구나 했는데, 기실은 전당포를전당포로 둔갑시켜 놓았던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단순한 낙서수준보다 낙서를 통한 대화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純粹한 人間形態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같다。 그러므로 낙서도 에 관한 청경구절을 들였지만 그것이 그의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것은 아니였다。

그러 그는 「소나」의권고를 생각해내고 헨나아 광장 한가운데 엎드려 대지에 입을 맞추지만 그 때도 역시 후회까지는하지않았다。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자살소식을 들은 충동적으로 자수할 결심을 했을때에도 아직 후회하지않고있었다。 다만 의식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였던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소나」의 感化에 자수를 결심한 「라스콜리니꼬프」는 8년의 형을 선고받아 시베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재생의길을 걷게된다。 그는 시베리아의 옥중에서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서를 손에잡고

(4面 4段 大學에 計속)

隨筆

淨化한 동화 골고다

——고난을 「罰과 罪」——

申 致 雄

「罪와 罰」은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大文豪도 스토에프스키의 뛰어난 長篇小說로 그의 마지막 大作「까라마조프家의 형제들」과 나란히 가장 代表的인 作品이고 그의소설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

베찌르부르그의 가난한 대학생인「라스콜리니꼬프」는 현실적으로는 無力하고 빈곤하지만 理知的이고 思索的인 청년이였다。

그는 인간을 凡人과 非凡人으로 구분하고 그의소설속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

「罪와 罰」은 過信하는「라스콜리니꼬프」는 자신에게 과연 일반적인 道德律을 밟고 넘어설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苦悶한다。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는 정열이 명하는데로 또 그 이론을 實證하기 위해 스스로 끄리미널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 결과는 자기가 나폴레옹的인 선택된 强者는 불파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실신상태에서 악몽에 시달린다。 決死的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아 여 자기 자신의 불안과 공포에 對抗하여 싸운다。 사실 자기가 정말 非凡人이였다면 살인이후에 아무런 심적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어야할 일이였다。 그러나 그 행위가 가져온 양심의 가책을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는 罪意識에 떠는 참혹한 자신을 발견하게된다。 특히「라스콜리니꼬프」의 살인에는 청학적인 이기고 있는 자신을 느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체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3자의 눈에는 전혀 장피를 잡을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는 자기의 죄를 더욱 후회하고 마음속의 무거움을 덜기 위해 광장 한가운데 엎드려 대지에 입을 맞추지만 그 때도 역시 후회까지는하지않았다。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자살소식을 들은 충동적으로 자수할 결심을 했을때에도 아직 후회하지않고있었다。 다만 의식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였던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소나」의 感化에 자수를 결심한 「라스콜리니꼬프」는 8년의 형을 선고받아 시베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재생의길을 걷게된다。 그는 시베리아의 옥중에서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서를 손에잡고

(4面 4段 大學에 計속)

믿음의 出口 「소나」통해 新生

민중에의 回歸에서 새 삶의 方式찾아

이어 「소냐」의 그리스도교적인 신성의 세계라고 할 수있다。 그리고 이작품에서 이지의 세계와 정열의 세계는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암마적인 行爲의 세계이고 논리와 정열만으로써 이해할수 없는 未知의 세계의 논리적인 觀念의 세계이고, 정열의 세계는 스비드리가이로프의 암마적 行爲의 세계와 정열의 세계는 모두 「疾」이라고 「소냐」에 의해 하나의 길로 이끌어진다。

결국 「罪와 罰」이「라스콜리니꼬프」의 세계에서 이지